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적 연구*

A Study on Humanities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장 덕 현(Durk-Hyun Chang)**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2. 조사결과
II. 연구의 내용	3. 프로그램 평가
1. 연구내용	V. 결론
2. 관련연구의 동향	1. 결론
III. 조사결과	2. 제언
1. 조사대상과 방법	

초 록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공공도서관 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화프로그램 등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교적 급속하게 인문학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문제점들도 관찰되고 있다. 즉, 기존의 문화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인문학 프로그램 전담 인력의 확보, 강사 확보 및 교육방식과 내용의 다양성 문제, 참여자 계층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자료와의 연계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인문학,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아웃리치서비스, 지역사회봉사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limitat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humanities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Specifically, this study also surveys such humanities programs open in public libraries and compar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rograms.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such humanities programs for the observation. For the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public librarians who are in charge of such humanities programs. Supplementary data were also collected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and brain-storming discussions with public librarians and program participants. For the suggestion, futur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uch programs and to cope with changes of user demands and future trends, the researcher put the emphasis on the networking with local art/cultural communities, proactive marketing strategies, practical program management strategies, and program development on the basis of user needs.

Keywords: Public library, Humanities, Cultural program in libraries, Out-reach service, Community service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6654)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 2017년 2월 18일 •최초심사: 2017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16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99-116,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3.99]

I. 연구의 목적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단순히 교양의 차원을 넘어 가히 ‘인문학 열풍’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시대를 관통하는 두드러진 경향이자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반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 1964년 John Plum의 [Crisis in Humanities]가 출간된 이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인문학의 위상이 다른 학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관련 학계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인문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5년 미국의 Earl Shorris가 창설한 Clemente Course이다. 복역수, 마약중독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성공회대학교의 ‘성프란시스 인문학강좌’와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길 위의 인문학’ 등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학, 지자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전국 수백개의 공공도서관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민간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나서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기반정책관 산하에 ‘도서관정책기획단’과 ‘박물관정책과’ 외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여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에 의한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의 가치는 삶의 본질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자취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응답하기 위한 지적 노력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 삶의 표현이자 기록인 문화유산을 반추함으로써 자아 성찰의 능력과 사회에 대한 균형감 있는 비판능력 및 세상에 대한 통합적 사유를 기르는 것이 인문학 공부의 목적이다.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정신적 가치 함양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자기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민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반면, 이렇게 인문학이 갑자기 호황을 맞다 보니 본래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찰보다는 단순히 인문학붐에 편승하여 프로그램이 단발적으로 기획된다든지, 기

관마다 차별성 없는 강좌와 투어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인문학 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도서관 서비스의 확립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단초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버리지는 않을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배경, 내용, 특징, 운영방식, 홍보전략, 참여자들의 반응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이 인문정신과 삶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이자 문화융성의 시발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1. 연구내용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몇 곳의 대학 연구소들이 민-관-학 협력의 형태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 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 등 타 기관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양하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의 문화프로그램 등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인문학 진흥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그리고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일차적으로는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관련사례와 인문학 프로그램 관련 원자료를 분석하고, 인문학 열풍의 실체와 전망 등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에 소재한 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내용, 교과과정, 운영체계, 참여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및 면담도 진행되었는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고, 관계자 및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사례연구를 위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연혁, 참여현황, 홍보전략, 운영체계 등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정리 및 분류과정을 통하여 조직화되었다.

2. 관련연구의 동향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인문학의 열풍이 거세지만 사실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진행한 인문학 강좌의 기획, 홍보, 진행과정을 소개한 이우정(2007)의 연구와 박정희(2010)의 간략한 보고서가 있다. 특히 이우정은 인문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원칙, 기획, 섭외, 모객, 그리고 진행 및 평가의 5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인문학 강좌를 통해 도서관과 이용자가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통로를 만들고, 이러한 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인문학 운동 수행을 주장하였다.

한편, 공공도서관에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문화프로그램에 천착한 연구들은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초기에 수행된 연구로 이경민(2003)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후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2008)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발전과정과 유형 및 목적, 의의를 밝히고 현재 국내외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진행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장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을 위해 소규모 독서시설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홍식, 서진순(2009)은 전라북도 공공기관과 평생학습운영기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적극적인 도서관 자료 활용에 있으며, 도서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정보중심프로그램, 어학관련프로그램, 정보화관련프로그램, 가족생활관련프로그램, 예술관련프로그램, 전통문화관련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공공도서관은 예술 편중현상이 심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았다.

조인숙, 김수희(2010)는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특정 대상이나 주제에 치우치지 않은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한다는 점, 홍보의 중요성,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문화프로그램 담당사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곽철완 등(2009)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분석과 이용자 만족도 연구에도

일부 인문학 강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감미아, 이지연(2013)은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중복 현상을 지적하고 도서관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 수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참여자 수가 적으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인문교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특징적이고 전문화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사례에 대한 보고자료도 일부 발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주영(2013)은 「등빛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례」 논문에서 ‘길 위의 인문학’과 ‘문고 읽기 활성화를 위하여’ 등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 직접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다룬 연구나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Ⅲ. 조사결과

1. 조사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례 공공도서관을 선정 후, 직접 방문조사 및 참여관찰을 시행하여 지원요인과 취약요인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상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문학 프로그램 담당자와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활발히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알려진 공공도서관 5개를 방문하여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사 및 관찰을 병행하였다. 대상이 된 공공도서관 모두를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 규모, 프로그램 운영비 규모, 인력 현황, 자료 이용 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팀이 공공도서관에 머무르는 동안 자료와 연중 프로그램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나 수준 등을 확인하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집중성, 확장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해당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자, 자원봉사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양한 유형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다. 이들은 연구팀이 방문조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거시와 천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들이다. 조사의 대상이 된 도서관의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	도서관명	운영주체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	연간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인원	프로그램 운영주체
부산광역시	A도서관	교육청	1,500만원	36개 프로그램	약800명	평생학습과
	B도서관	지자체	2,000만원	47개 프로그램	약800명	자료봉사과
울산광역시	C도서관	교육청	1,000만원	32개 프로그램	약700명	지원협력과
경상남도	D도서관	교육청	1,000만원	24개 프로그램	약550명	평생학습과
	E도서관	지자체	800백만원	33개 프로그램	약850명	사서팀

면담 자료는 실제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하여 대상자를 섭외하고 면담하면서 수집하였다. 즉, 의도적으로 표집한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인식에 기반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비구조화된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상황이나 수집된 자료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례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특별히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면담 내용은 동의 하에 녹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8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를 위한 기준은 조인숙, 김수희(2010)의 자료수집 및 분석 항목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항목을 추출하여 예산, 참여율,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방식, 홍보, 시설 및 접근성, 강의평가 실시여부, 강좌 담당자 등 최종 8가지로 적용하였다.

2. 조사결과

가. A도서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도서관은 지역도서관으로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따라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민강좌-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국립대학교와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된 형식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이루어지는 강의인데, 주된 내용은 ‘자연, 삶 그리고 개발: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 ‘영도다리로 보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우암동, 소박·피란민 수용소에서 주거지로’, ‘부산경관과 삶, 도시에서 자율적 삶은 가능한가’, ‘협동조합을 배우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실천’, ‘도시를 걷는 여성들’, ‘재난과 도시:3.11 이후의 일본’ 등의 주제로 로컬리티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지역 대학의 연구자들의 강연자로

참여하였다.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이지만 로컬리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대학과의 협약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의 연구주제 위주로 강좌 내용이 정해지고, 따라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A 도서관에서는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 년 1회 ‘옛길을 걷다’라고 하는 역사·문화 답사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길의 의미를 찾음과 동시에 길과 함께 다져온 지역의 중층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음미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참가자로 하여 고래로부터 어떠한 이문화 교류가 있어왔는지를 경주 대릉원, 국립경주박물관 일원을 탐방하여 타자 인정 안에서 상호문화교섭을 체득하도록 한다고 한다.

나. B 도서관

B 도서관은 구청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받는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구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인문주관을 정하고, 역사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와 인문학을 접합시켜 다양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인문정신을 함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인원은 구내 전 연령 총 400명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① 난중일기와 이순신장군의 리더쉽(초청강사가 진행하는 인문학 강의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쉽을 보여준 이순신 장군을 통해 배워야 할 덕목과 리더의 자질에 대한 내용), ② 파워클래식(구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하여 쉽게 즐기고 관심가질 수 있는 유쾌한 음악해설과 연주로 구성된 클래식 무대) ③ ○○산의 숨소리가 들리나요!(관내의 산을 테마로 한 이야기 콘서트로, 주제는 산을 매개로 한 지역 스토리텔링과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인문학 콘서트) 등이다.

인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독서 아카데미도 시행중인데 이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60개 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B 도서관에서는 ‘문화, 예술, 문학이 어우러진 세계 테마기행’과 ‘역사, 의례, 예술로 만나는 부산 이야기’의 두 주제로 공모에 당선되어 2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독서행사로 북토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의 책을 선정하여 같이 읽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책을 통한 진솔한 이야기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부산의 공공도서관들은 ‘원북 원부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도 원북 원부산의 후보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저자와의 만남을 기획하거나 작가와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인문정신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및 모집인원은 지역주민 약 100 여 명으로 가을 독서문화축제 기간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 독서를 위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습공간은 아파트,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경로당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 주민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지정한 학습 시설이다.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학습자가 수강희망하는 학습공간에 전화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지정하며, 구내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센터, 종교단체 등에 지정된 학습공간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 C 도서관

현재 C도서관에서는 27개의 일반 문화 프로그램과 5개의 토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인문학 프로그램은 총 4개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으로 행복해지기’, ‘소통하는 논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나는 이야기 한국사’와 ‘공부가 쉬워지는 세계사’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학부모연수 프로그램인 ‘영화와 함께하는 인문학’과 ‘청소년 고전세계문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주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아동센터 등의 유관기관에 파견하여 초등학생, 노인, 장애우들을 위한 한자, 독서 논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근처의 사회 복지관,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마음 치유를 위한 동화읽기’와 같이 클레멘트 코스와 유사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의실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등록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도 우연히 강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30-40명 단위의 강좌가 많은데, 초반에는 정원을 채우는 반면, 회차가 거듭되면서 인원이 줄어 평균 2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였다.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 소통을 통해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소통하는 논어’로서, 주로 50대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중문학 전공의 전문강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논어 자체에 대한 강의보다는 이것을 바탕으로 강사 경험담이나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라. D 도서관

경남에 위치한 D 도서관은 인문학특강 ‘한국의 선비정신과 풍수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강좌의 참여인원은 약 100명으로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형식이지만 참여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강연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지역의 풍수지리적 해석’, ‘꿈의 해석’, ‘매장과 화장문화’, ‘선비정신이란?’, ‘동학농민운동’ 등이었다. 특강 참여자는 대다수가 중년층 혹은 노년층이었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강사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관련 이야기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향후 인문학 특강 개설 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연구팀이 잠깐 대화를 나눈 참여자 대부분이 만족스럽다고 답변하였고, 내용보다 ‘유명강사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다’라는 답변도 상당히 많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 격차가 내재한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 E 도서관

경남 E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연구팀은 이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에 참여하여 운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문학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지역주민에게 인문학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강연과 탐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독서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E 도서관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매달 인문학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형식의 현장탐방을 시행한다. 인문학 저서와 인물의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강연회와 공연 행사 등을 마련해 알찬 탐방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탐방 전 진행되는 사전강의는 인문학적 지식을 넓혀주어 현장탐방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길 위의 인문학’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인문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E 도서관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하면서 타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을 테마로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지역 내 둘레 길과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연을 들은 뒤 인문학 탐방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담당사서와의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개념은 소통, 통로, 토론의 장 등의 단어였다. 인문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목표 이러한 개념들이 실상은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역할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

문학적 가치관과 인문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구성

거의 모든 인문학 프로그램이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같이 책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의 장을 마련하는 북 토크/북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만 이 또한 저자가 주제 강연을 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인문독서아카데미의 경우 각 주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사서는 프로그램 소개 및 사회를 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보였다. 주로 강연자가 와서 인문학 지식 함양을 위한 설명하는 강의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참여자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강연자와 참여자 사이의 소통을 활발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사는 위탁, 추천, 직접의뢰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모집하고 있다. 강사의 자격 제한은 특별히 없으며, 기본적으로는 박사학위를 지닌 전문가를 강사로 모집한다. 협력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수나 강사 보다는 그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강의 기술이 부족하여 수강생들이 강의를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강사 섭외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고 있었다.

강의 빈도는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B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지정한 '인문주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년도마다 인문주간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다. 인문독서아카데미는 오전 10시부터 12시, 북 토크/북 콘서트는 2시부터 4시로 진행시간이 다른데, 프로그램의 주 참여자층인 노년층과 주부들이 참여하기 좋은 시간을 택했다는 답을 들었다. 예전에는 오후 7시-9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다시 낮 시간대로 조정하였다고 한다. 즉 중학생 이상의 지역주민을 참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업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는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 도서관의 경우 토요일을 이용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다수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과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 강의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를 피드백 형식으로 받고 있었다. 다만, 강의 평가의 문항이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유명 강사가 초청된 경우 강의 전후에 사인회, 사진 찍기 등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통해

강의의 만족도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강의 평가의 내용은 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만 확인할 뿐 시간대나 향후 방향, 시설과 환경 등 설문 항목이 세부적이지는 않았으며 참여한 주민들의 성향이 반영되기도 어려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북 토크 같은 경우 진행 중에 소감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수강자들의 피드백을 조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지가 제공되면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길 위의 인문학 등 기획 프로그램은 현장 체험 및 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프로그램 내용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강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반영할 수 있고 공감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 형태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문제도 관찰되었다. 사설기관인 ‘수유너머’나 ‘인디고서원’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 토론으로 수강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이 많다.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대체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이 경우 실적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강의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사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해는 바뀌어도 비슷한 소재로 강의가 구성되고, 강의의 신선도가 떨어져 수강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최근에는 독서 프로그램에 음악을 접목하거나 영화, 미술, 음식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인문독서 아카데미’, ‘열린 인문학’와 ‘목요인문학’ 등 다른 이름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들이 실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으며, 북토크나 북콘서트 프로그램 또한 내용면에서 차별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한편, 도서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음연도에도 지속하는 것은 합리성을 지니는 면도 있다. 따라서 지속하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도 필요해 보였다. 인문학 프로그램만을 놓고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그 수가 결코 많지 않고 중복된 내용도 있는 만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프로그램과 인문학적 성찰이 적절히 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높다.

한편으로는 강의 수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연구팀이 만나 본 수강생들 가운데에도 강의가 어렵다는 반응과 심도 있는 인문학 강좌를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했다는 반응이 동시에 관

찰되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할 때 수강생들의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 청소년, 노년층 등 공지를 하고 있지만, 강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 담당자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강의자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인문학 강의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복사, 제본하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외에 별도의 자료는 활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소장 자료를 소개한다거나 도서관 내의 자료와의 연계를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강의내용과 관련도서, 그리고 도서관 소장사항 등을 함께 수록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다.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참여율은 사실 연구팀의 예상보다 매우 높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들이기는 하지만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회의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히 좋았다. 담당사서에 의하면 도서관 프로그램의 신청율이 타 기관보다 항상 더 높은 편인데, 시민들의 여가가 늘었고, 교육의식이 높아졌으며,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의 경우 관심 주제라든지 유명강사 초청 여부 등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지는 현상도 있었다.

반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에는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회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보통 1-2회 때 참여율이 제일 높아 초반에는 접수 초과가 되는 경우도 많은 반면, 점차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져서 중반부가 지나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즉, 수강생 모집은 어렵지 않은 반면, 횡수를 거듭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도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마다 인문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어 이들은 사서들과 인사도 하고 지내는 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가지는 분야의 강좌에만 참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A 도서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에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참여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설명이었다.

직장인들은 오후 7~9시에도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다.(가시를 돌봐야 하기에?). 또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본 결과 직장일을 마치고 도서관에 와서 2시간씩 강의를 듣다보니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강의 도중 조는 경우도 있다.(K사서와의 면담)

지역사회 구성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이용자 계층 중 40-60세 사이의 중년 연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따라서, 이외의 연령대 주민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주말 강좌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인문학 프로그램 담당자 유무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도서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성격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고 확장성도 높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질문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운영 내용과 방식 모두 매우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C 도서관의 경우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관련 전담사서가 존재하지 않아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D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담당자는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는 여러 명이 담당하지만, 대개의 경우, 특히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경우, 거의 혼자서 진행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인문학 프로그램 업무가 전문성과는 관련없이 주로 초임 사서들에게 배정되고 있었고 담당하는 기간도 늘 달랐으며 이전에 진행했던 자료는 공문으로만 남아 있을 뿐,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때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보고서를 토대로 일단 계획하고, 두세 번 진행하고 난 뒤에는 노하우가 생기니까 알아서 진행한다. 하지만 역대 담당자들은 전근가고 따로 프로그램 특성이나 문제점, 개선 방안 등도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알 수도 개선할 수도 없으며 오직 본인의 새로운 방식대로 계획,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L 사서와의 면담)

면담에 참여한 담당자들도 인문학 프로그램 뿐 아니라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전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인문학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을 이수한 적도 없어, 업무, 인력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구청이나 교육청 등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경우 해당 관청의 평생학습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의외로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로 예산 배정과 강사지원 등 행정적 절차만 지원할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마. 홍보 및 재정지원

홍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언론을 통한 홍보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광고를 내는 방식이다. 둘째 도서관 내에 이용자들이 전단지 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한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의 팝업, 공지사항이나 평생학습 메뉴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지한다. 최근에는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내, 외부에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신문 광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 도서관 내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등을, 온라인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 포털 및 구청 블로그 외에 트위터 공식계정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자료 게시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A 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기존 참여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프로그램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방학 중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문학프로그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들의 경우 실제 선정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어 프로그램 공지와 진행에 있어서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연초에 1년간의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지하는데, 공모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의 공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차후 선정 이후에 추가공지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야 하고, 홍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A 도서관의 경우 TV 방송 하단에 자막을 넣는 식으로 홍보를 하다가 최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강좌에 맞춰 방송을 내보내고 수강생을 모집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체로 도서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도서관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A 도서관과 함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대학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연구소가 홍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도 재정적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답하였다. 다만, 홍보적인 측면에서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과는 별도로 홍보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B도서관의 경우 인문학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공모 지원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민에게 수강료를 받았으나 조례 개정 이후 현재는 평생교육 증진 차원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구청 지원으로는 주로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공모사업 지원예산을 활용한다.

IV. 결론

1. 결론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문학 프로그램 담당사서, 즉,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담 기획, 운영, 보완 등 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육청 소속의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지만, 이들 또한 교육 행정직이거나 일반 사서일 뿐이었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초임사서에게 주어지는 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서가 인문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경우도 학교에서 혹은 현장에서 인문학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뿐 아니라 강사와 사서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하여 인문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서 양성 과정에서, 혹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 운영 교육과정이 고안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자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계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보았는데,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경우 그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는 도서를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소개하여 도서관 자료와 강의를 간접적으로 연계하는 경우는 없었다. 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의 기반 시설,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등은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강의 진행 간 사용하는 자료와 도서관 자료와의 연관 관계가 매우 낮아 인문학 프로그램이 도서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자료와 강의 자료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도서관 자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는 주로 평일 오전과 오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수강생이 특정계층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관 결과 비교적 평일 낮 시간이 자유로운 주부층이나 퇴직한 노년층이 주 이용자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프로그램 수강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취업과 관련된 각종 시험 및 면접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2-30대 직장인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인문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들이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에 보다 실용성을 강조한 인문

학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공공도서관과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도서관 인근에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이 있거나, 지역에 역사적인 유적이 있다면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기관이나 학회, 협회 등의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특정 전시회나 연주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도서관에서 관련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한편 조사대상이 된 도서관들은 각종 사회 복지 단체나 초등학교 등과 연계는 활발한 반면, 지역 내의 다른 인문학 모임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층이 제한되고 전문 강사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함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 제언

도서관의 인문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서들과 이용자들과의 면담 중에 눈에 띄었던 키워드는 ‘성찰’, ‘소통’, ‘통로’, ‘토론’ 등의 단어였다. 인문학과 도서관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가 이 개념들 속에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어우러져서 도서관과 인문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 인문학 프로그램일 것이다. 반면, 이러한 의미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회요인이라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기회인지 도전인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와중에 공공도서관들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도서관=인문학’이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인문학의 열풍에 휩싸여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과연 ‘도서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문학 이전에 먼저 인문학을 도서관의 영역으로 만들고 그런 이후에 인문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베풀어 내는 노력이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보다 쉬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그 이후 더 심화된 인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 대중화를 매개로 정보와 지식을 삶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인문학의 봄’은 최근에 관찰되는 현상이며,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인문학적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들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산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탓에 이들 프로그램의 내실에 대한 검증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공공도서관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의 붐은 오히려 지역 공공도서관의 존재의의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인문정신의 부활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이 공공도서관들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인문학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료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온 공공도서관의 오래된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갑자기 불어 닥친 인문학의 바람에, 도서관계는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정신과 공공도서관을 통해 인문학적 경험의 확산이라는 의의를 되찾고 공공도서관이 활로를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이 연구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모티브를 찾고 향후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추진되는 인문학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감미아, 이지연. 2013.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문화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97-215.
- 곽철완 외. 200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97-208.
- 김문식. 2014. “공공도서관과 인문학의 만남-재미있는 도서관을 만들자.” 『도서관문화』, 55(4): 20-24.
- 박정희. 2010. “장성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마치고.” 『도서관문화』, 51(10): 55-57.
- 이경민. 2003.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127-151.
- 이우정. 2007.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전략.” 『도서관문화』, 48(10): 24-27.
- 이주영. 2013. “둘레길을 걷다 만나는 우리마을 역사-등빛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례.” 『도서관문화』, 54(8): 12-16.
- 조인숙, 김수희. 2010.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실태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31-42.
- 최흥식, 서진순. 2009.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분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227-242.
-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227-242.

관·정보학회지』, 39(1): 219-244.

McGovern, Gail. 2003. Finding Support for Arts, Humanities and Cultural Programming : A Resource Guide for California Public Libraries. CALIFORNIA STATE LIBRARY.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am, M. A. & J. Y. Lee.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Programs Offered by Public Libraries and Other Regional Public Service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24(4): 197-215.

Kwak, C. W. et. al. 2009. "A Study of the Model and Program Manual of Public Library Cultural Programs."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20(1): 197-208.

Hwang, K. S. et. al. 2008.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219-244.

Lee, K. M. 2003.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Public Libraries Culture Program and Reading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127-151.

Cho, I. and Kim, S. 2010.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of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y in Jeju A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21(1): 31-42.

Choi, H. S. & J. S. Seo. 2009. "A Study o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Jeonbuk Provincial A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227-242.